

플라이가 없을 때는 텐트보다 좀 더 큰 비닐을 준비해도 좋겠다.

3. 소도구 정리

텐트의 규모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배낭은 텐트 구석에 두고 조명 준비를 한다. 이때 비닐 시트를 바닥에 깔면 불편한 습기나 냉기를 막을 수 있다. 조명은 대부분 양초를 많이 써왔으나 최근에는 형광랜턴등이 나와 있어 편리하다. 부탄가스 램프로도 많이 사용되는 조명기구중의 하나다. 이 램프의 약점은 등피가 깨지기 쉬운 점이나 많은 인원일때도 편리하고 실내를 충분히 밝혀주어 편리하다. 샌들이나 운동화가 준비되었으면 입구쪽에 가지런히 놓는다.

4. 취사 준비

공동 취사장이 아닐 경우라면 먼저 아궁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돌을 준비한다. 적당한 크기의 돌 3개를 구해 이것을 3군대에 놓으면 남비를 올려놓고 불을 뿜 수 있는 준비가 된다. 바닥의 흙이 습기차 있을 때에는 잘 건조된 자갈을 바닥에 깔아놓고 불을 뿜는다. 튼튼한 면장갑도 필수품이다. 버너 사용시는 충분한 연료준비가 중요하다. 버너연료는 석유, 백 개솔린, 알코올등이 있으나 2개 이상의 버너를 사용할 경우라면 같은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버너를 준비한다. 텐트내에서 취사시에는 반침대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코펠은 사람의 수에 의해 크기를 결정하며 수통도 있어서는 안된다.

5. 식사

식은 영양가가 많으면서도 분량이 적은 것으로 한다. 대부분 육류를 많이 먹는데 과식은 금물이다. 즉석 야외음식으로 바베큐가 좋다. 돼지고기, 쇠고기 등과 함께 닭도 많이 애식되고 있다. 인스턴트 식품은 가능한한 피하고 가급적 날채소를 준비하도록 한다. 준비한 밑반찬의 관리도 중요하다. 채소등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둔다든가 고기는 간장에 담구어 두는등 지혜가 필요하다.

6. 취침

잠자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닥의 평평함이다. 적당한 매트및 슬리핑 백의 준비는 편안함을 준다. 슬리핑 백은 저지대일 경우 화학섬유면 충분하다. 베게는 너무 딱딱하지 않은 것을 준비하며 슬리핑 백 속에서는 옷을 얇게 입는 것이 피로를 쉽게 푸는 방법이 된다.

사진촬영

사진촬영의 9가지 테크닉

‘칼라사진을 촬영하는 도중에 부딪치는 몇가지 어려운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때 당신은 비로소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사진을 만들게 될 것이다,’

1. 하이 콘트라스트

밝고 강한 직사광 아래 후면과 측면에서 빛을받는 피사체의 콘트라스트를 소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원래 칼라사진 촬영의 이상적인 조명비율은 3 : 1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10 : 1에 이르는 조명 상태일때는 칼라가 깨어지기 마련. 따라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또는 그림자 부분의 조명비율의 차이를 감소시키고 세부 모양의 표현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림자 부분을 전자 후렛쉬등을 사용하여 보조광 역할이 되도록 비추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인물이 대상일때 획기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

2. 비가 오는 날씨

가장 인상적인 칼라 사진들이 흔히 비가 오는날 만들어진다. 젖은 거리는 색을 반사하며 어두운 하늘의 분위기를 도와준다. 가능한 비를 맞지 않는 장소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하여 찍게 되면 촬영거리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피사체를 배경과 주위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하고 셔터속도는 이와 반대로 빠르게 결정한다. 81A필터(미색계통)를 사용하면 청색경향을 띠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3. 황혼

황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것 보다 단지 밝거나 또는 어두울 따름이다. 노출은 항상 하늘과 구름에 기준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전경의 나무나 건물들은 실루엣이 된다. 때때로 태양을 가로막는 이러한 피사체들을 전경에 들으로써 단조로움을 극복할수 있게된다. 노출계가 내장된 카메라로 이러한 피사체에 대하여 노출을 측정할 때는 태양 직사광선이 카메라 렌즈에 직접 닿는 것을 피한다. 보통 칼라필름(ASA100)을 사용할때 1/125초에 F11의 노출을 권하고 싶다.

4. 달빛

보름달을 찍어보면 보통상태에서 이는 마치 안개진 태양광 상태에서 찍은 사진과 같이 보이게 된다. 이것은 달빛이 약한 강도이기는 하지만 태양광의 반사광선이므로 태양광과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달빛아래에서 촬영할때는 보통 칼라필름을 택한다. 달빛 촬영에서 한가지 더 포함시킬 것은 거리나 건물의 불빛을 같이 포함하도록 시도하라는 것이다. 너무 어둡다 하여 긴 노출을 주게 되면 뿌여지는 영향과 기다란 달이 되고 만다. 때문에 1/30초 정도로 셔터속도를 결정하고 조리개는 완전 개방시킨다. 달의 실제감을 강조하기 원할때는 망원렌즈를 사용하여 달을 한번찍고 보통렌즈로 교환한다음 일반 야경풍경을 찍는 이중노출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이다.

5. 창문

창문의 조명은 매우 부드럽고 은은한 칼라사진을 만들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인물사진 촬영에 좋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 직사광이 들어오지 않는 북쪽의 열린 창문을 택하고

청색빛이 많은 광질을 교정시키기 위해 81A필터를 사용한다.

6. 야경사진

상점, 건물, 자동차, 네온사인등 혼합된 광선(색온도) 등은 노출의 결정에 아주 어려운 장애물이 된다. 형광등과 네온사인이 지배적인 조명일때는 보통 칼라필름을 사용하여 촬영한다. 노출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것보다 더 주는 것이 성공적인 야경사진을 만들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로 노출을 준다. 결국 야경사진은 긴 노출로 삼각대를 필요로 한다. 특히 이중노출을 포함할 경우 튼튼한 삼각대가 있어야 야경사진을 성취시킬수 있게된다.

7. 극장과 무대

동적 피사체를 잡기 위해서는 셔터속도의 제한성으로 조리개를 활짝 열 필요가 있게된다. 고감도 필름(ASA400)을 택하여 셔터속도는 1/30초 또는 1/60초로 결정하여도 웬만한 곳에서는 촬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셔터결정으로 손이나 발이 약간 흐려지는 것은 오히려 동적감을 줄 수 있으므로 그다지 신경쓸것이 못된다.

8. 촛불

촛불결에 있는 인물이라든가 기타 피사체는 불꽃부분의 과도노출 때문에 일어나는 하레이슨과 주변이 어둡게 되어 자연감의 묘사가 어렵게 된다. 촛불도 잘 나오고 주변 피사체도 잘 나오는 방법을 달성하기 위해 보통칼라 필름에 전자후렛쉬를 사용한다. 우선 카메라를 삼각대 위에 놓고 후렛쉬 자체가 필요로 하는것 보다 긴 노출시간으로 찍는다. 예를 들어 1/60초에 F8보다 훨씬 긴 1초에 F8을 사용하는 것이다 (단, 후렛쉬빛은 가급적 촛불로 향하지 않게). 두번째 방법은 전체 조명 방법으로 신문에 불을 붙여 조명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다.

9. 긴 노출

일반적인 칼라필름으로 촬영시 셔터속도를 느리게 하면 칼라 발란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물론 1/10초까지는 필터없이 촬영하여도 되지만 그 이하로 내려갈 때는 82A (또는 C 2 : 연한 하늘색) 필터를 사용하여 누런 색조가 되는 것을 막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폭포수, 바위 사이로 흐르는 냇물과 우거진 숲을 포함시켜 생동적인 풍경사진을 얻을수 있게된다.